관심사 독해: 검증과 신뢰의 비용

2026년 11월 23일 게시글 대상분

오늘의 글들은 숫자와 데이터, 증명과 정치적 약속, 예술적 재능이 어떻게 신뢰를 얻고 잃는지를 보여 준다. 제조업 통계와 임금 연구, 가짜 데이터 논문, AI 시대의 수학 증명, 독일 좌파의 연합 논쟁, 벨라루스의 비공개 대화, 재능을 둘러싼 서사까지 관통하는 질문은 하나다. 무엇을 확인했고, 그 확인의 비용은 누가 치르는가.

제조업 부활을 말기 전에 확인할 것

Econbrowser — CEA and Manufacturing Triumphalism

미국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의 제조업 보고서는 관세와 리쇼어링, 공장 건설 붐을 묶어 "제조업 부활"을 선언한다. CEA는 백악관에 경제 분석을 제공하는 공식 기구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하나의 학술 논문이라기보다 정부의 정책 내러티브에 가깝다. 블로그 글은 바로 그 지점을 겨냥한다. 보고서가 공식 제조업 고용 통계를 썼지만, 그 공식 통계가 현재 가장 확실한 숫자인지는 별도의 문제라는 것이다.

저자는 예비 벤치마크 수정치, 민간 급여처리 기업 ADP의 고용 자료, 분기 고용·임금 전수조사(QCEW)를 계절 조정한 수치를 나란히 둔다. QCEW는 표본 조사가 아니라 실업보험 신고 자료에 가까운 행정 기록이므로, 나중에 공식 고용 통계를 교정하는 기준으로 자주 쓰인다. 생산과 노동시간은 2025년 1월을 0으로 둔 로그 지표에서 증가한다. 그러나 수출은 물가 상승분을 뺀 실질 수치가 아니라 명목 수치로 제시됐고, 수출품 안에 들어간 수입 부품의 몫은 2026년 수입 급증 속에서 더 알기 어렵다.

이 비판은 제조업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생산 증가와 고용 과장, 명목 수출 확대는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문제는 관세가 그 개선을 일으켰다는 인과 주장이다. 가격 효과, 수입 중간재, 통계 수정, 다른 정책과 수요 변화를 분리하지 않으면 "우리 정책이 공장을 되살렸다"는 문장은 검증보다 선전에 가까워진다. 정책 평가의 신뢰는 좋은 숫자를 찾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 나쁜 가능성까지 미리 공개하는 데서 시작한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어디서 올랐나

Marginal Revolution — Increasing pay for lower wage workers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시간제 노동자 가운데 실질 시급 15달러 미만을 받는 비중은 38%에서 13%로 떨어졌다. 25%포인트 하락이며, 원래 비중의 약 3분의 2가 줄어든 변화다. 이 결과를 두고 흔히 떠올리는 설명은 “저임금 기업이 사라지고 고임금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창조적 파괴다. 소개된 연구는 그 설명의 비중이 생각보다 작다고 말한다.

연구진은 고용주의 진입과 퇴출, 그리고 기존 고용주 내부의 조직 변화를 구분했다. 행정 자료와 직장 평가 자료를 결합한 결과, 임금 상승의 상당 부분은 저임금·중간임금 기업이 저숙련 직무의 보수를 올리면서 일어났다. 빠듯한 노동시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외부 압력을 만들었고, 일부 기업은 그 압력 속에서 일을 다시 배치하고 역할을 바꾸며 임금을 올렸다. 낡은 기업이 사라진 뒤에만 임금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 결과는 노동정책의 초점을 바꾼다. 새로운 “좋은 기업”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미 사람을 고용한 조직이 일과 보수를 바꾸게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이 연구를 최저임금 인상의 완전한 승리로 읽어서도 안 된다. 노동시장 압박과 조직 재편이 함께 작동했고, 직장 평가 자료가 모든 고용주를 똑같이 대표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하다. 임금 문제는 기업의 생사만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권한과 설계 문제다.

가짜 데이터가 과학으로 굴러가는 방식

Retraction Watch — Two publishers investigating studies claiming to predict blood type from fingerprints

2023년 이후 지문 이미지로 혈액형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한다는 논문과 학회 발표가 십여 편 나왔다. 그런데 이 논문들이 사용한 공개 데이터는 원래 혈액형 정보가 없는 지문 데이터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원본은 나이지리아에서 수집된 SOCOFing 데이터다. 여기에는 지문 이미지가 있지만, 지문 주인의 혈액형 검사 결과는 없다. 누군가 이미지를 혈액형 폴더 여덟 개로 나눠 올렸고, 다른 연구자들이 그 폴더명을 정답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의혹을 제기한 연구자들은 데이터 공유 사이트 Kaggle의 파생 데이터 약 6,000개 이미지를 원본과 비교했다. 해시는 파일 내용을 고유한 지문처럼 바꾸는 값인데, 6,000개 이상이 원본과 정확히 일치했다. 파일 이름에 “Cluster”가 남아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실제 혈액형 검사로 붙인 표가 아니라 이미지를 비슷한 것끼리 묶은 군집화 결과일 가능성을 보여 준다. 군집화는 알고리즘이 비슷해 보이는 대상을 묶는 절차일 뿐, 그 묶음이 혈액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혈액형을 예측할 수 있는가"보다 "정답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가"다. 90%가 넘는 정확도는 생물학 연구에서는 보통 더 많은 잡음을 예상하게 만드는 신호다. 일부 저자들은 선의로 데이터를 썼다고 답했고, 두 출판사가 조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의도적 기만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래도 결과는 심각하다. 데이터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모델이 의료 시스템에 들어가면, 높은 정확도 숫자가 오히려 잘못을 더 빠르게 퍼뜨린다.

증명을 읽는 이유가 바뀌고 있다

Computational Complexity — Why read proofs anymore?

AI가 만든 증명과 형식 검증 도구가 늘면서, 수학자가 증명을 직접 읽는 이유는 달라지고 있다. 글은 1,700만 줄의 Lean 증명과 새로운 계산복잡도 결과를 농담처럼 오가게 하지만, 질문은 진지하다. Lean은 증명을 컴퓨터가 검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적는 언어이자 도구다. 기계가 검증한 증명을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검사하는 일은 점점 비현실적이 된다.

그렇다고 읽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정리가 참인지 확인하려고만 증명을 읽지 않는다. 새 정리를 증명하는 기술을 배우고, 어떤 아이디어가 아름다운지 감각을 익히며, 학생에게 줄 문제와 연구 방향을 얻는다. 미지의 결과를 얻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지적 취향과 판단력을 기르는 훈련으로 증명 읽기가 남는다. 계산기가 있어도 어린이가 구구단을 배우듯이, 기본적인 증명 능력은 전문가의 문해력에 가깝다.

다만 형식 검증도 완전한 신뢰를 주지 않는다. 검증기와 기본 라이브러리, 정리를 formal statement로 옮긴 사람의 해석을 신뢰해야 한다. AI가 증명을 만들어 낼수록 인간의 역할은 세부 계산 검사보다 "무엇이 증명됐는가, 그 정의는 옳은가, 이 결과가 왜 중요한가"를 묻는 쪽으로 이동한다. 앞의 가짜 데이터 사건과 여기서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기계를 거부하는 일이 아니다. 기계가 준 결과를 사람이 어디까지 책임지고 읽을지 다시 정하는 일이다.

사안 협력과 권력 위임은 다르다

NachDenkSeiten — Magdeburger Weg statt Fraktionszwang!

NachDenkSeiten — Der Magdeburger Holzweg – eine Replik auf Diether Dehm

독일 작센안할트주의 논쟁은 BSW와 AfD의 관계를 둘러싼다. BSW는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 AfD는 독일을 위한 대안이다. "브란트마우어"는 주류 정당이 AfD와 연정하지 않겠다고 세운 방화벽을 뜻한다. 디터 뎀의 공개서한은 이 벽이 평화와 사회정책의 사안별 협력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평화 결의, 이스라엘 방산기업 투자 철회, 보육료 폐지처럼 지역에서 확인된 성과를 강조하고, 12월 15일 AfD 후보의 주총리 선출을 막으면 BSW가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쓸 것이라고 경고한다.

옌스 베르거의 반박은 선을 다르게 긋는다. 같은 안건에 같은 표를 던지는 일과, 5년 동안 예산·학교·경찰·문화·인사를 다루는 행정부를 AfD에 넘기는 일은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AfD의 감세와 연금·사회·주거 정책이 BSW의 방향과 충돌한다고 지적한다. AfD의 러시아·에너지 입장에 일부 접점이 있어도, 군비 확대와 이스라엘 지지, 미국 MAGA 세력과의 친화성까지 포함하면 "평화 정당"이라는 이름은 성급하다고 본다.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도덕적 접촉 금지가 아니라 권한의 크기다. 사안별 투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질 수 있다. 그러나 주총리 선출은 정책 한 건이 아니라 집행권 전체를 넘긴다. 반대로 모든 접촉을 오염으로 취급하면 평화와 생활비처럼 실제 다수가 원하는 의제를 포기할 수 있다. 필요한 답은 "벽냐 동맹이냐"가 아니다. 어떤 협력이 유권자에게 검증 가능한 사안 협력으로 남고, 어느 순간 권력 위임으로 바뀌는지를 미리 규칙으로 정하는 일이다.

대화 채널은 평화의 결과가 아니라 안전장치다

NachDenkSeiten — Belarus: "Entweder alle am Tisch – oder es bleibt nur der Krieg"

벨라루스의 안보 전문가 예우게니 프레이헤르만은 서방과 러시아·벨라루스 사이의 공식 채널이 끊겼지만, 비공개 전문가 대화는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가 만든 "민스크 대화"는 2020년 이전 약 700명이 참여한 지역 안보 포럼을 열었다. 지금은 그런 공개 회의 대신, 상대가 재앙을 피하려는 합리적 행위자인지부터 다시 확인하는 탐색 단계에 있다. 그의 원칙은 단순하다. 관련자가 모두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지역 안보 협상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는 1967년 하르멜 보고서를 떠올린다. 냉전 시기 NATO가 소련을 억지하면서 동시에 대화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고 정리한 문서다. 벨라루스의 핵무기 배치를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가 미국 핵우산을 원하는 것과 같은 위험관리 논리로 해석하고, 드론 사건 때 벨라루스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 사전 경고 정보를 보낸 일을 실용적 채널의 예로 든다. 억지와 대화를 하나로 묶는 이유는, 서로 방어라고 믿는 행동이 상대에게는 공격으로 보이는 안보 딜레마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 인터뷰는 대화의 필요성을 잘 보여 주지만,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책임 소재는 역사가에게 맡기자”는 말은 전쟁의 책임과 배상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다. 대화는 면책이 아니라 오판을 막는 안전장치여야 한다. 민스크 협정의 교훈도 그가 말하듯 “전투를 멈춘 모든 합의는 가치가 있다”에 그치지 않는다. 휴전을 지속 가능한 안보 질서로 바꾸지 못하면 임시방편으로 남는다. 결국 대화와 억지, 책임 추궁은 서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한다.

재능 서사에 숨겨진 출발선

books76 — 書評 / あなたはわたしか？人を殺したかった彼女とアムステルダムに辿り着いたわたし『神に愛されていた』

한 서평은 소설 『神に愛されていた』을 통해 재능과 질투를 묻는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작가가 절필한 뒤 30년 만에 과거를 말하는 구조다. 소설 안에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절망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천재적인 후배 작가를 만나며 무너진 인물이 있다. 서평자는 결말을 밝히지 않고, 재능을 믿는 일이 구원인지 저주인지를 남긴다.

이 서평이 특별한 이유는 책 내용보다 서평자의 자기 대조다. 그는 무용수로서 네덜란드의 세계적 무용단 인턴십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소설을 읽고 “이 아이는 나다”라고 느꼈다고 쓴다. 동시에 재능에는 한계와 차이가 있으며, 성과를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버리는 선택”을 한다고 말한다. 이 고백은 성공담으로 닦여 있지 않다. 부러움과 열등감, 좋아하는 사람을 동료로 보고 싶은 욕망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도 재능 서사는 개인의 각오만으로 읽으면 위험하다. 서평자 스스로 인정하듯 부모가 항공료 50만~60만 엔을 부담해 주는 사람, 유럽 여권으로 거주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출발선은 다르다. 재능은 결과를 설명하지만, 그 재능이 기회로 바뀌는 조건은 가족·여권·돈·시간이 만든다. 앞의 통계와 과

학, 정치 논쟁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이지 않는 원자료를 물어야 한다. 누가 재능 있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재능이 검증받을 기회를 얻는가를 봐야 한다.

수집과 근거

승인된 피드 22곳을 모두 확인했다. 새 글 24편을 모두 끝까지 읽은 뒤 8편을 분석하고 16편은 생략했다. 분석한 8편은 원문 페이지 또는 승인된 피드 전문 기준으로 전문 수신을 확인했다.

출처

- https://econbrowser.com/archives/2026/11/cea-and-manufacturing-triumphalism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1/increasing-pay-for-lower-wage-workers.html?utm_source=rss&utm_medium=rss&utm_campaign=increasing-pay-for-lower-wage-workers
- https://retractionwatch.com/2026/11/23/two-publishers-investigating-studies-claiming-to-predict-blood-type-from-fingerprints/
- https://blog.computationalcomplexity.org/2026/11/why-read-proofs-anymore.html
- https://www.nachdenkseiten.de/?p=159268
- https://www.nachdenkseiten.de/?p=159274
- https://www.nachdenkseiten.de/?p=159195
- https://books76.hatenablog.com/entry/2026/11/23/080000